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EMERiCs
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
http://www.emerics.org/
2018. 11. 12. | 아프리카·중동

「이슈&트렌드」

이란, 민간기업 통한 원유수출 개시

작성 ▌ 장윤희 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)

□ 2018년 10월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에 수출용 원유 판매를 시작함.

- 10월 28일 국영이란석유공사(NIOC)는 원유 100만 배럴을 이란에너지거래소(IRENEX)에서 배럴당 74.85달러에 판매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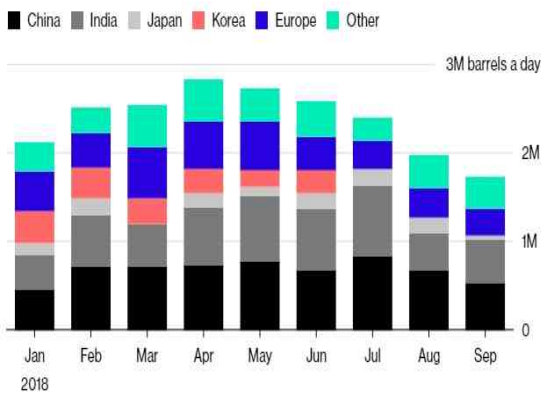
○ 민간기업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원유를 구매하여 수출해야 하며 국내 공급은 금지됨.

○ 원유의 최소 구매 단위는 35,000배럴로 이 날 거래에서 28만 배럴의 원유가 판매됨.

- 이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석유부문 제재 복원이 임박한 상황에서 판매 방식을 다양화하여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됨.

○ 미국은 11월 5일부터 이란산 석유·석유제품·석유화학제품 구매 등을 포함한 석유 관련 거래,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,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해 제재를 복원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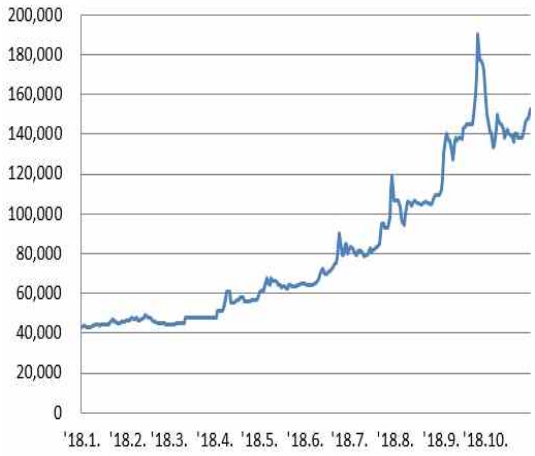
그림 1. 이란 원유 수출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그림 2. 이란 리알(Rial)화 환율 추이

(단위: 리알/달러)



주: 시장환율 기준임.
자료: Bonbast.com

□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(JCPOA) 탈퇴 이후 이란 원유 수출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환율 및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됨.

- 2018년 9월 이란 원유 수출 규모는 전월 대비 일일 26만 배럴 하락한 172만 배럴을 기록함.

○ 이는 2016년 2월 이래 최저치이며 2018년 최고 수출량을 기록한 4월에 비해 39% 감소한 규모임.

- 이란 시장환율은 2018년 1월 평균 달러당 44,560리알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10월에는 142,540리알에 달함.
- 이란 물가상승률도 2018년 5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이란력으로 열 번째 달(9월 22일~10월 21일)에 15.9%를 기록함.
  - ㅇ 이란 월간 물가상승률이 15%를 넘어선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임.

□ 미국의 석유부문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 원유 수출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하면서 대이란 제재의 영향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.

- 11월 5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, 인도, 터키, 일본, 이탈리아, 그리스, 대만 등 8개국이 한시적으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발표함.
  - ㅇ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들 국가가 지난 6개월간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상당히 감축하였다고 밝히며 180일간 제재 예외를 인정함.
- 한편 미국의 제재 예외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임.
  - ㅇ 11월 6일 오전 기준(미국 동부시간) WTI 가격은 전일 대비 1.33달러 하락한 배럴당 61.77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3.17달러에서 71.67달러로 1.5달러 하락함.
  - ㅇ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급상승을 우려하며 이란 제재 속도를 조절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.

EMERiCs

참고자료

Reuters, Tehran Times, Bloomberg, Bonbast.com, Central Bank of Iran, Financial Times, CNBC 등